

새로 나온 詩集

당신을 위한 미완성 소묘

安在植 지음

「허수아버처럼 두팔 벌리고」「광대들의 줄다리기」 등의 수필집을 상재한 바 있는 에세이스트의 첫시집. '안면도 소묘' '밤이 주는 꿈' '신사설시조' '당신을 위한 미완성 노트' 등 4부로 나누어 모두 50여편의 작품을 수록했으며, 권말에 평론가 채수영의 작품해설「그리움으로 다가간 詩」를 덧붙였다. 고향, 혹은 옛것에 대한 근원적 그리움을 주로 그렸다.

소래 / A5신 / 110면 / 1500원

겨울새

한성우 지음

'인간사'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韓聖愚의 첫시집. "매일 / 시간의 중심에서 / 해가 돌아 나고 / 나는 둘로 분열된다 / 나는 그림자를 밟지 못하고 / 그림자는 / 나를 숨기지 못한다" ("日暮")에서 보는 것처럼 짧은 행간 속에 무리없는 리듬을 내재시키면서 감각적 이미지의 번이를 통해 사물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작품들이 주종을 이룬다. '芸人詩選'의 제1권. 예인들 / A5신 / 142면 / 2000원

얼굴 없는 여인

金市宗 지음

196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시단에 나온 이래 모두 10권의 시집을 펴낸 바 있는 시인의 신작시집. 모두 70편의 작품을 '곱게 늙기' '햇빛 방망이' '안타까운 일' '받들었 총' '성에 긴 아침' 등 5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현실에 대한 예리한 풍자와 해학이 씩씩한 웃음을 동반한 채 펼쳐진다. 권말에 문예지 등에 게재된 월평과 시인 자신의 에세이 한편을 덧붙였다.

시문학사 / A5신 / 116면 / 2000원

넘이어

이경아 지음

베스트셀러시집「이런 사랑이고 싶습니다」를 통해 '大衆詩'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는 이경아의 제2시집. 「휘트면에서 보내는 편지」「석녀」연작시 등을 비롯, 사랑과 그리움의 정서를 주조음으로 삼고있는 60여편의 작품을 '그대를 기다리며' '세상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며' '휘트면에게 보내는 편지' 등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소담출판사 / A5신 / 130면 / 2000원

28 출판저널

눈뜨는 下弦

이병훈 지음

1959년 「자유문학」지를 통해 시단에 나온 이래 「단층」「하포길」「어느 흉년에」「달무리의 作人들」 등을 펴낸 바 있는 '향토시인'의 신작시집. 우리 기층문화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농경현실에 대부분 시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푸성귀'의 이미지가 시집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 권말에 시인 許素羅(군산대 교수)의 작품해설「소멸과 침탈에의 극복」을 덧붙였다.

청학 / A5신 / 130면 / 2000원

황금우박

차진배 지음

街頭직업청소년을 위한 야학의 개설자로 현재 대한청소년선도협회 회장으로 있는 차진배의 '태양의 부름으로'에 이은 제2시집. 표제 '황금우박'으로 상징되는 물질의 풍요가 현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작품 70여편을 4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가난한 이웃들의 삶에 깃든 신산과 애환을 부드럽게 달래주는 친근성을 보여준다.

작은책 / A5신 / 130면 / 2200원

산이 터엉 빈 날

殊眼 지음

탈속한 풍취의 글과 그림으로도 잘 알려진 승려시인의 禪詩集. 모두 80여편의 작품을 '산이 터엉 빈 날' '茶이야기' '기다림' '마음밭 가꾸기' 등 4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山그늘 내리는 옛동산 그리며 / 여보게 벗 / 차나 머금 세"에서 보는 것 같은 '茶詩'류가 주종을 이룬다. 전면 아트지에 수안스님이 직접 그린 선화과 글씨들을 적절히 배치해 인상적이다.

다보 / A5신 / 126면 / 2800원

우리 오빠와 순이

林和 지음

일제시대 카프의 맹장으로 프로문학운동을 주도했던 '월북시인'의 대표시선집. "내가 지금 간단면, 어디를 간단 말이나?"로 시작되는 절창 '내거리의 순이'를 비롯해 '우산 받은 요꼬하마의 부두' '현해탄' '황무지' 등 대표작 40여편을 추려 묶었다. '문학사의 미아'로 남아있던 한 시인의 작품세계를 개괄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엮여졌다.

문학과비평사 / A5신 / 136면 / 2000원

나그네달빛

유안진 지음

수필가로도 잘 알려진 여류시인의 대표시선집. 「달하」「절망시편」「물로 바람으로」「그리스도, 옛애인」「날개옷」「달빛에 젖은 노래」「영원한 느낌표」등 既刊 8권의 시집에서 추려낸 대표작 90여편을 3부로 나누어 묶었다. '소녀적'이라고까지 비판받기도 하는 나이브한 서정성을 전통가락에 담고 있는 유안진 시문학의 본령을 조감할 수 있다.

신원문화사 / A5신 / 138면 / 2000원

떠나는 그대 눈부신 명상입니다

유하 외 지음

모국어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자부로 "절망에서 희망을, 절멸에서 회생을, 절대악에서 절대 아름다움을 추구"하겠다는 목표로 한데 모인 '21세기·전망'동인의 첫번째 동인시집. 「무림일기」로 잘 알려진 유하를 비롯해 함민복, 진이정, 박인택, 차창룡동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우리는 늘 열려 있을 것이다"라는 동인들의 다짐에서 한국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예감할 수 있다.

책나무 / A5신 / 130면 / 2000원

프롤레타리아의 노래

보그다노프 지음 / 임채희 옮김

러시아문학사에 있어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19세말~20세기초의 러시아문학의 대표작 앤솔로지. 혁명적 휴머니즘과 사회적 평등의 이상을 노래한 '노동시'를 중심으로 벨로제르프, 보그다노프, 그브이로프, 네차예프, 보이노프, 베르드니코프, 뽀모르스키 등의 작품들을 한데 묶고, 권말에 역자의 작품해설을 덧붙였다.

솔밭 / A5신 / 150면 / 2000원

꿈에 보는 폭설

문형렬 지음

동화, 소설, 시 등이 모두 일간지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등 화려한 문학적 이력을 펼쳐보이고 있는 젊은 작가의 첫시집. 불안과 비애, 허무 등의 짙은 페이소스를 배면에 간 서정적 시편 70여편을 3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자포자기적 비애를 딛고 꿈과 영원을 그리는 시인의 고뇌가 잘 드러나 있다. 진형준의 해설「서정적 자아의 움직임」을 권말에 수록.

청하 / A5신 / 118면 / 2000원

사갈의 마음

이지엽 지음

1982년 「한국문학」 신인상을 통해 시단에 나온 시인의 「아리사의 노래」「다섯계단의 어둠」에 이은 제3시집. 모두 53편의 작품을 3부로 나누어 묶었는데, 고향을 떠나 낯선 지방에서 사는 이향민의 고단한 삶과 그 낯선 지방에서 봉급생활자가 겪는 일상의 굴곡들을 주로 보여 준다. "상처와 부끄러움에 대한 스스로의 치유의 마음으로" 이 시집을 엮었다는 것이 시인의 말.

청하 / A5신 / 142면 / 2000원

해와 달의 계적

박재삼 지음

1955년 「현대문학」 천료로 시단에 나온 이래 「춘향이마음」「천년의 바람」「대관령근처」 등의 시집을 통해 한국정통서정시의 맥을 이어온 중견시인의 제12시집. '미완의 사랑' '계절이 빛은 무늬' '나무를 상념으로' '물을 위한 노래' 등 4부로 나누어 모두 100여편의 작품을 수록했는데, 시인의 病歷 때문인지 "역사보다 생명이 소중한"을 그린 시편들이 많아 이채롭다.

신원문화사 / A5신 / 140면 / 2000원

세월을 삭힌 노래

곽영기 지음

「시조문학」천료로 문단에 나온 이후 「개나리」「대관령」 등을 펴낸 바 있는 시조시인의 제3시집. '한수 한편 시조시' '두수 한편 시조시' '세수 이상 한편 시조시' '장시조시'라 하여 단시조, 연시조, 장시조 등 시조의 형태별로 작품을 묶은 점이 특징적인데, 강원도일원의 자연과 그곳에서의 사람살이를 주로 노래했다.

을지출판공사 / A5신 / 152면 / 2500원

聖가족

황지우 지음

1980년 「문학과 지성」을 통해 시단에 나온 이래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나는 너다」 등을 펴내며 평단과 독자의 각별한 주목을 받아왔던 황지우의 시선집. 여느 시선집들과는 달리 하드커버와 두꺼운 본문용지를 사용한 점이 독특하며, 수록작품도 24편만을 정선했다.

살림 / B6신 / 54면 / 2800원